

지니TV 비밀병기는 '독점전략'

'유어아너' 작품성 탄탄해 인기 타 OTT 배급 없는 독점 콘텐츠 "어디서 보나" 시청자들 원성 "구독자 만족도 올려 경쟁력 강화"

'모처럼 나온 탄탄한 스토리'라고 평가받으며 인기몰이에 성공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유어아너'는 보고 싶어도 아무나 못 보는 드라마였다. 비교적 신생 채널인 ENA로 편성된 데다가 자사 플랫폼인 지니TV 외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배급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냐'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왔다. ENA 채널의 방송 시간에 맞추거나, 지니TV 유료 채널에 가입해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콘텐츠였지만, 드라마는 악조건 속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KT에 따르면 실제로 '유어아너'의 흥행으로 지니 TV 주문형 비디오(VOD) 이용 횟수는 눈에 띄게 늘었다. '유어아너' VOD 이용 횟수는 누적 트래픽 약 110만 회로 역대 다른 오리지널 드라마와 동기간 대 비교하면 가장 높은 반응을 기록했다. '크라시'보다도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유어아너' 방송 이후 지니 TV 고객의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시간도 전월 대비 약 95% 증가했고, 오리지널 드라마를 본방송보다 7일 먼저 선 공개하는 월정액 서비스 고객 수도 직전에 비해 약 40% 급증했다. 그간 지니TV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마당이 있는 집', '남남', '유괴의 날' 등 티빙을 통해 함께 공개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신병 2', '악인전기', '아한 사진관' 등은 독점 콘텐츠로 공개됐다. 오는 23일부터 방송되는 이진욱과 신혜선 주연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 역시 다른



국내 OTT에 배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KT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향후 새롭게 선보일 다양한 오리지널들은 콘텐츠 성격에 따라 유통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TV(IPTV)보다는 OTT가 대체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지니TV의 이런 전략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IPTV 교체 시점과 지니TV 독점 콘텐츠가 뺄 타지는 시점이 맞물려야 이용자를 유입하기 용이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최근 IPTV의 성장 자체가 둔화한 것도 지니TV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니TV 모바일이 IPTV와 묶인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OTT였다면 히트 콘텐츠를 종종 내놓다 보면 가입자가 조금씩 성장하는 구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불확실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베테랑 2' 추석 극장가 독주

6일째 400만 돌파...OTT는 넷플 '무도실무관' 인기



올해 추석 연휴엔 황정민·정해인 주연의 액션 영화 '베테랑 2·사건'이 대대적인 흥행몰이에 나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18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베테랑 2'는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319만8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 점유율 85.7%로, 압도적인 1위였다. 누적 관객 수는 개봉 첫날부터 이날 손익분기점인 400만명을 돌파했다. 1341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베테랑' (2015)에 이어 천만 영화의 반열에 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베테랑'의 속편인 '베테랑 2'는 열혈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이 강력범죄수사대에 새로 들어온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와 함께 연쇄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다. 연휴 첫날부터 나흘간 관객 수 2~3위는 한국 애니메이션 '브레이브걸스: 뽕스타의 탄생' (9만2000여명·2.2%)과 '사랑의 하츠피' (8만여명·1.8%)으로, '베테랑 2'와는 격차가 컸다. 할리우드 SF 공포영화 '에이리언: 로물루스' (5만9000여명·1.7%), 일본 애니메이션 '록백' (4만5000여명·1.2%),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 관한 다큐멘터리 '안녕, 할부지' (3만2000여명·0.8%)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추석 연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 중에선 김우민·김성균 주연의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끌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지난 13일 공개 이후 사흘간 시청 수(전체 시청 시간을 영화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가 830만을 기록해 비영여권 영화 부문 1위에 올랐다.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를 감시하며 시민을 보호하는 무도실무관 정도(김우민)와 보호관찰관 선민(김성균)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연합뉴스

'말년 병장' BTS 제이홉

다음달 17일 전역



다음달 전역을 앞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말년 병장' 제이홉(사진)이 "극한의 F(성격 유형검사의 감정형) 상태가 돼 제 2인 생활을 돌이켜보는 중인데 뿌듯하고 멋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제이홉은 추석인 1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지금은 말년 병장 그 자체, 침대에 누워 글을 쓴다"며 이같이 적었다. 만행 전에 이어 지난해 4월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다음 달 17일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딱 한 달 앞두고 있다. 제이홉은 "시간이 아슬하듯만 했는데, 이제는 정이라는 게 생겨 애뜻해진다"며 "집 정도 해 보고, 잘 쓰고 애용하던 물품들도 후임들에게 나눠주고서 가벼워진 관물대를 보니 그 마음이 좀 더 짙어진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떨어지는 낙엽 조심해 보게"라며 "다음 달, 이년에 뵙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른도 울린 '사랑의 하츠피' 100만 돌파

한국 애니메이션 12년만의 기록...캐릭터 상품도 인기

어린이 관객에게 인기를 끌며 흥행 중인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츠피'이 지난 16일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쇼박스 따르면 '사랑의 하츠피' 누적 관객은 개봉 41일째인 이날 오전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 애니메이션 누적 관객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2012) 이후 12년 만이다. '사랑의 하츠피'은 '마당이 나온 암탉' (220만명)과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 (105만명)에 이어 누

적 관객 수로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3위에 올랐다. 지난날 7월 개봉한 '사랑의 하츠피'은 TV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극장판으로, 어린이와 부모를 극장으로 불러들이면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개봉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도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라 있다. 캐릭터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지출이 많은 것을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등골 핑', '파산핑'이라는 말도 나왔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